

## News

### 은성수 "중소 신용 나빠져도 금리 올리지마라"...은행 "대출원칙 훼손"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이어 정부가 여신정책의 근간인 기업 신용평가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BNK금융, 코로나19 피해 서민·소상공인에 1조 지원

헤럴드경제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동성과 재기 지원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추진 신규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존 대출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 1조160억원을 지원

### KB·신한·하나, 일부 대출 한시중단...금융소비자보호법 여파

연합뉴스

은행들이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부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을 일제히 중단한 상태

### 지난달 은행채 3.8조 발행, 금리상승 대비 사재기(?)

헤럴드경제

은행채는 지난달 시중은행 3.26조원, 지방은행 5300억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67.2%, 39.5% 증가. 올해 1~2월 발행규모, 6.12조원으로 전년 동기간 2.8조억원의 두 배 이상 급증 업계에선 저금리로 은행들의 수신상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어 따라, 은행채 발행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 IPO 성과 내는 삼성증권...비결은 '재무 파트너' 전략

한국경제

삼성증권은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공동 주관사로 존재감을 입증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 쏘카, 아놀자 등의 상장 주관사로 이름을 올리며 IPO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 시 최대 2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1위 명품 핸드백 제조회사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의 연내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

### 한화생명, 4월 제판분리 앞두고 설계사노조 무리한 '몽니'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오는 4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앞둔 가운데, 설계사들이 회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농성을 진행 중

### 지난달 회사채 발행 늘고 주식 발행 줄었다

머니S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40% 이상 늘었다.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회사채 발행이 늘었고 금융채 발행도 증가 올해 2월 주식 발행 규모는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건수가 줄면서 60% 넘게 줄었다. 주식 발행 규모는 6846억원으로 전월(1조9118억원) 대비 1조272억원(64.2%) 줄었다.

### 데이터거래소에 웃음 짓는 카드사 vs 시큰둥한 보험사

아시아투데이

국내 8개 카드사는 모두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여기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6개 기업만 참여 이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 카드사 데이터는 소비와 밀접한 정보인 반면, 보험사 데이터는 사고와 질병 관련 정보로 활용에 제한되기 때문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